

昌

子漢弼 한필

관직은 도침의 문하찬성사를 지냈다. 묘는 실전되어 우항재 뒤에 단(壇)을 만들고 이채진(李採鎭)이 글을 지어 비석을 세웠는데 한필공 후손의 족보에 잇대의 세계(世系)를 잃었다고 하며, 고보(古譜)에는 시종공의 아들이라 하면서 다만 공필과 한필이 기재

子君百 군백

관직은 광정대부 문학평리를 지냈다. 묘는 실전되어 1980년(庚申)에 설단을 하여 비석을 세우고, 공의 후손 갑신(甲臣)·을신(乙臣)·희(禧)·사홍(士弘)·약용(若庸)·만용(萬庸) 등의 제단을 같은 장소에 마련했다.

婿卞玉蘭 변옥란

婿曹 珮 조연

婿朴仁典 박인전

창녕인 판서(判書) 밀양인 初諱옥란(玉鸞) 1322년생 1395년정월 23일졸 壽74 관중주부증찬성사원유(判中樞父贈贊成事原) 一子長子맹양(孟良) 二子(중양승지) 仲良承旨 三子(계양대제) 季良大提學 학호춘정(季良大提學 號春亭)

子履 이

관직은 검교문하시랑 우문관태학사를 지냈다. 배위는 승평군부인(昇平郡夫人) 장씨(張氏)로 판군기감 득운(得運)의 딸이다. 묘는 창녕 효자암동에 있으며 효암재(孝岩齋)라는 재실이 있다. 官檢校門下侍郎右文館

子甲臣 갑신

子乙臣 을신

평리(評理) 검교문하시랑(檢校門下侍郎)